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연중 제31주일

2024년 11월 3일 / 제662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 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유연호 제1독서 석근수 제2독서 김하연 / 입당 21 봉헌 512, 221 성체 188, 155 파견 227
Narrator Jun Vicencio 1st Reader George Hegarty 2nd Reader Emiliana Lee

입당송 | 시편 38(37),22-23 참조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1독서 | 신명 6,2-6

화답송 | 시편 18(17),2-3,7,33,41-44과 51(◎ 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별,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

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2독서 | 히브 7,23-28

복음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 마르 12,28ㄱ-34

영성체송 | 시편 16(15),11 참조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11월 03일	주일학교 YES	Fr. Augustine
11월 10일	주일학교 YES	Fr. Jim
11월 17일	주일학교 YES	
11월 24일	주일학교 NO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동식 토마스, 김정희 테레사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두 날개

우리는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꼭 1등이 누구인지 정해야만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엄마와 아빠 중에서도 누가 더 좋은지 선택을 강요받으며 커온 우리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일인가 봅니다.

예수님 시대의 한 율법 학자도 예수님께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마르 12,28) 하고 묻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하고 싶었던 질문을, 고맙게도, 이 율법 학자가 대신해 준 것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 학자는 분명히 한 개의 정답을 바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정말 첫째가는 1등 계명이 무엇인지 깔끔한 한 개의 정답을 바라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두 개의 답을 주십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르 12,30)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르 12,31)는 두 개의 계명을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데 두 날개가 되어주는 가르침이 있다면, 하나는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요,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 하겠습니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날개가 있어야만 하느님께 힘차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하나만 고집하고 어느 하나에만 치우쳐서는 결코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전설의 새 비익조는 암수 각각 눈과 날개가 하나 밖에 없는 새입니다. 그래서 둘이 몸을 꼭 붙여 껴안고, 하나 된 날갯짓을 힘차게 할 때만이 비로소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느 한쪽의 날개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이라는 날개와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날개가 마치도 비익조처럼 하나의 날갯짓을 할 때, 하느님을 향한 힘찬 비

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하느님 사랑은 공허할 뿐이고, 하느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요란할 뿐입니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하느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쉽게 혹은 어느 정도 무책임하게 “네.”라는 대답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민과 망설임을 동반한 깊은 반성과 사색이 요구될 것입니다. 아마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양심적이고 솔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날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하나 됨의 조화를 이룰 때만이 하느님을 향한 힘찬 날갯짓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규흠 베네딕도 신부 | 제14 동작지구장

11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자녀를 잃은 모든 이
For anyone who has lost a child

아들딸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부모가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평화와 위로를 얻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all parents who mourn the loss of a son or daughter find support in their community and receive peace and consolation from the Holy Spirit.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동증조절, 체질관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STAR태권도 STAR TAEKWONDO 跆拳道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p>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미술교실 전문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다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는 처음 만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서로를 소개하고, 원래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서로 안부를 물어줌으로써 유대감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사의 의미는 사실 가만히 보면 단순한 안부 나눔이 아닙니다. 한 존재와 또 다른 한 존재, 그리고 한 사람의 지난 삶의 역사가 또 한 사람의 삶의 역사를 만나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입니다. '나'와 '너'를 떠나 '우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매 미사 때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미사 때 이 인사는 왜 하는 것일까요? 사실 미사를 시작하면서 바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특히 주일 미사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신자들도 있으니 미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반갑게 인사 나누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영성체 전에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눌까요?

미사 때 신자들이 서로 나누는 평화의 인사는 로마서(16,16)에 나오는 "거룩한 입맞춤"이나 베드로 1서(5,14)에 나오는 "사랑의 입맞춤"이란 의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사실 이 평화의 인사는 화해와 일치 의미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영성체를 통해 성체를 모시며 그리스도와 일치하기에 앞서, 먼저 신자들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함으로써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러한 평화의 인사를 예물 바치기 전에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과 화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마태 5,23-24 참조). 이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의 치릴로(315-387) 성인은 평화의 인사를 화해의 표시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다툼과 갈등이 있다면 이 평화의 인사를 통해 하느님 앞에서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 예식은 7세기경부터 영성체 전으로 그 순서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화해와 평화를 통한 서로 간의 일치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영성체 전에 이런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신자들 간의 일치를 넘어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평화의 인사는 궁극적으로 '신앙인 공동체의 일치'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향한 예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인사는 단순히 주위 사람들과 가볍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앙인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나누고 기원하는 기도이자 서로를 향한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천상 예루살렘에서 누릴 종말론적인 완전한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일치하여 걸어가야 하는 신앙 공동체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REALTOR® AIDEN KIM 에이든 킴 (니콜라오)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p>
<p>West Dublin PETS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James Golf Class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p>	<p> SUSHI HANABI 계상진 빈첸시오 조성아 데 레 사 927 Main Street A Pleasanton, CA 94566 Tel) 925-596-3645</p>



■ 11월 주요 전례 및 행사 일정

- 11월 2일(토):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 11월 3일(주일): Daylight Saving Time 종료
- 11월 3일(주일): 예비 신자들을 받아들이는 예식
- 11월 4일(월) - 15일(금): 루르드 / 파티마 성지순례 (성지순례 기간 중 평일미사 없음)
- 11월 10일(주일): 평신도 주일(연중 제32주일), 이날 미사는 산호세 본당 정재훈 대건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 예비 신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오늘 '예비 신자들을 받아들이는 예식'을 통해 여섯분의 형제자매님께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 예비 신자 여러분들이 세례성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예비 신자 명단: 전해영, 허광엽, 이아인, 한은경, 한재영(2025년 부활 세례반), 김채린 카타리나(첫영성체)

■ 봉사직 임명

- 구역장: 이주일 사도요한(마태오), 하남숙 스잔나(루카)
- 재무평의회 주간: 함종식 마티아
- 그동안 공석이었던 마태오와 루카 구역의 구역장과 본당의 재정 관리를 담당하는 재무평의회 주간을 임명합니다. 봉사직을 수락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오랜 기간 재무평의회 주간으로 봉사해 주신 장찬 베드로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 위령 성월 묘지 방문 연도 및 미사

- 일시: 11월 2일(토), 오후 1시 30분 연도, 2시 미사
- 장소: Gate of Heaven Catholic Cemetery
- 오클랜드 본당과 산호세 본당도 함께 참여합니다.

■ 소공동체장 모임

- 일시·장소: 11월 3일(주일), 미사 후 Room A
- 연말 행사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니 모든 구역 / 반장님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 성모회 주관 '대림환' 만들기 행사

- 일시: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 8시
- 장소: Room A
- 참가비: \$40, 제작판매 \$40
- 참가대상: 누구나
- 신청문의: 성모회 회장 박경화 안젤라(408-318-7588)

■ 루르드 / 파티마 성지순례

- 기간: 2024년 11월 4일(월) - 15일(금)
- 참석 인원: 32명(본당 신부님 포함)
- 본당 교우들로 구성된 성지 순례단이 성모 발현지인 루르드와 파티마를 순례합니다. 순례단을 위해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성지순례 기간 중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교우분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 Daylight Saving Time 종료

- 11월 3일(주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이 해제됩니다. 시간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랑의 모후 꾸리아 11월 월례 모임

- 일정: 11월 10일(주일), 10시 45분(교중미사 후) - 12시
- 장소: Room A
- 대상: 각 브레시디움 간부들

■ Request a Care Package for TVKCC College Students

- For college students of families registered with TVKCC
- We are sending care packages to hard working college students in our community to provide extra support as a community.
- How to Request: Sign up at <https://tinyurl.com/TVKCCCare>
- Deadline: Sunday, November 10, 2024
- Questions? Contact Augustine Sung (925-394-4283)

■ 온라인 봉헌 시스템(Tithe.ly) 사용 안내

- 방법1: 온라인 봉헌 웹사이트 <https://give.tithe.ly> 에서 봉헌
 - ※ 주보· 웹사이트 QR 코드로 온라인 봉헌 바로 연결
- 방법2: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봉헌
 - ※ 구글 플레이·애플 앱 스토어에서 "tithe.ly"로 검색·설치
- 봉헌시 [Member ID] 란에 신자번호(또는 전화번호) 기입
- 자세한 사항은 본당 웹사이트 [온라인 봉헌 안내] 참고 <https://www.tvkcc.org/onlinegiving/>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402.15	\$424	\$3070	\$130	\$70	\$5096.15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공신디(10-12), 김지용(10), 김홍기(10-12), 두신(9,10), 유근열(11,12), 이인현(11,12), 이줄리아(8), 이태원(10), 이희선(9)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두신(9,10), 유근열(11,12), 이태원(10), 이희선(9)

- Bishop's Appeal

두신(9,10), 유근열(11,12), 이태원(10), 이희선(9)

- 건축봉헌금 김지용, 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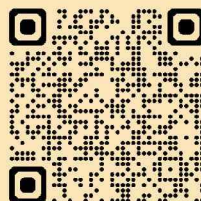
- 감사헌금 이희선

- 바자회 후원금 \$5,354.64 (바자회 수익금)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최수진 세실리아 가정 (루카8)

서중하 막시밀리아노 가정 (루카7)



큐알코드 스캔하고

온라인 봉헌 페이지로 바로 가기

Scan To Online Donate

